

다이와보 - OE사 “에어 컴팩트”의 판매 확대

다이와보의 자회사인 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의 와카야마(和歌山) 공장은 OE사인 “에어 컴팩트”의 판매가 2004년도 하반기에 600곤(梱) 규모로 늘었으며, 2004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본격적으로 자체 공장에서 생산된 텍스타일을 중심으로 팬츠 및 아우터의 소재로 300곤을 판매하였다.

“에어 컴팩트”는 OE사로서의 독특한 특징을 살린 실로서 리넨(linen) 20%, 울 20%, 실크 10% 혼방사도 개발하였다. OE 정방기는 균제도 및 내마모성을 높이며, 볼륨감이 있는 원사 생산에 대응하고 있다. 이 실은 균제도가 좋으며, 잔털이 적고 벌크성과 소프트감이 있으면서도 반듯한 원사로 개발되었다. 이 실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방기의 장치를 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료의 선택, 방출 조건, 공정 관리에도 많이 배려하고 있다.

또한 가공에서도 워싱 가공으로 천의 태가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발색성도 좋다. 이에 따라 고객의 용도, 가공이나 세탁의 노하우, 다이와보의 용도 개발이 더욱 좋은 성과를 올렸으며, 용도는 보텀(bottom : 하반신의 입는 옷), 셋 업(set up : 다른 소재끼리의 짝 짓기)와 같은 아우터(outer) 소재로서 용도가 넓어지고 있다.

개발원재부의 텍스타일 상품화에서도 “에어 컴팩트”가 차지하는 판매 비율은 2005년 춘하절 소재로서 10% 정도까지 상승하고 있으며, 2005년 추동절용으로는 20% 정도까지 판매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생산하고 있는 실의 번수도 이제까지는 20수 단사뿐이었는데, 24수, 30수, 36수 단사까지도 개발에 성공하였다. 용도는 T-셔츠 이너(inner)용으로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제품의

로서의 판매도 고려하고 있다. ♣